2020. 9. 28 485호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힘쓰는 음식점 지원

문화·관광 마을 단위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침 시행

사회·복지 '반려동물의 이유 없는 안락사'를 없애기 위한 행동계획 마련

환경·안전 온라인 직거래 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서 내 '안전 교환 구역' 설치

도시교통 대표적인 쇼핑가를 '자동차 없는 거리'로 운영

도시계획·주택 침체되어 있던 '카카아코' 지역을 신(新)상업지구로 개발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신희완
	유진경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하노버	이희재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뉴욕	윤규근
	이수진
	이정근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영준
	강기향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상파울루	김현아
스톡홀름	문선우
	허윤회
바르셀로나	진광선
	박정수
싱가포르	이은주
런던	정기성
비엔나	안병선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자카르타	박재현
도쿄	박재호
오사카	권용수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김용훈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시드니	정용문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힘쓰는 음식점 지원

일본 교토市 / 환경·안전

교토市는 음식 배달이나 테이크아웃(takeout)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억제에 협조하는 음식점 등을 지원하는 '교토市 배달 및 테이크아웃에 관계된 플라스틱 삭감 조성금'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

배경 및 목적

- 교토市는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통해 일정 면적 이상의 점포나 대학을 대상으로 연 1회 2R[1)]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줄이기 실적 보고 및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 '사업자보고제도'를 2015년 10월부터 시행하는 등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음
-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식 배달이나 테이크아웃(takeout)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양도 증가
  - 2020년 4~5월의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양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
- 市는 '코로나19' 관련 지방 교부금을 활용해 배달·테이크아웃에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억제에 힘쓰는 음식점 등을 지원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교토市 배달 및 테이크아웃에 관계된 플라스틱 삭감 조성금(京都市宅配及びテイクアウトに係るプラスチック削減助成金)' 제도를 마련

제도의 주요 내용

- ① 배달·테이크아웃용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식기로 바꾸는 것을 지원
  - 주문한 음식을 제공할 때 이용하는 일회용 용기 등을 일반적인 재사용 식기로 바꾸고, 사용 후에 그것을 돌려받을 경우 지원
    -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식물자원을 원료로 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배합한 일회용 용기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1) 2R은 필요 이상으로 쓰레기가 되는 제품을 만들지 않거나 사지 않는 'Reduce'와 재사용하는 'Reuse'를 뜻함

- 지원 대상자는 교토市에 주된 사업소나 사업 거점을 둔 중소기업 등으로, 시내에서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영업을 하는 음식점 또는 사회복지법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공익법인 등
- 재사용 식기 구매비용은 1개당 1,000엔(약 11,000원) 이하로 지원하며, 지원 한도액은 1개 점포당 10만 엔(약 110만 원)
  - 체인점 등 같은 사업자의 신청이 3개 점포를 넘으면 30만 엔(약 330만 원)이 한도

◦ **② 배달·테이크아웃용 용기나 비닐봉투 등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소재로 바꾸는 경우 지원**

- 주문한 음식을 제공할 때 이용하는 일회용 용기나 비닐봉투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 배합된 것으로 바꾸는 경우 지원
  - 비닐봉투는 배합률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
- 지원 대상자는 위의 ①과 같음
- 지원 한도액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배합 일회용 용기 구매비용 1개당 100엔(약 1,100원), 비닐봉투 1장당 50엔(약 550원)

◦ **③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를 전파하기 위해 '마이백' 제작을 지원**

-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를 함께 하기 위해 '마이백'을 제작·배포 또는 대여하는 상인회나 식품 관련 단체 등을 지원
  - 개별 점포는 지원 대상이 아님
- '마이백' 제작비를 1개당 500엔(약 5,500원) 이하로 지원하며, 1개 단체에 최대 10만 엔(약 110만 원)까지 지원

◦ **위의 ①과 ②는 중복 지원이 가능**

◦ **이 지원 사업은 2020년 7월 16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시행**

의의

◦ **플라스틱은 석유자원을 소비하고,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바다나 자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교토市의 이번 대응은 의의가 있음**

https://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272549.html

https://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270527.html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마을 단위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침 시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1] / 문화·관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활동 제한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예술가를 지원하고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에서부터 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州의 각 부서가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새로운 행정지침을 수립·시행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규모 사회제약 조치 실행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가들이 급증**

- 자카르타州 문화국은 2020년 4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예술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필수 식료품을 긴급 지원
- 예술가들의 생계 및 활동을 위해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과 손잡고 온라인으로 예술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Go Online Artist)을 추진하기도 함

◦ **자카르타州는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예술 생태계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주지사 지침」을 수립(7월 17일)**

- 활동이 제한된 예술가와 문화예술 분야 활동가의 자유로운 표현을 장려하고,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기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가 넘치는 지속 가능한 자카르타를 조성하려고 함

행정지침의 주요 내용

◦ **이 행정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을공동체의 비행정 단위인 통(RW)·반(RT)[2]과 기본 행정단위인 동 차원에서부터 예술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음**

1)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자카르타州 아래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 5개 행정시와 연안 도서로 이루어진 풀라우 스리부 행정군이 있으나,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또한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계획과 정책 수립은 州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

2) 마을공동체 단위인 RT(rukun tetangga, 루쿤 트탕가)와 몇 개의 RT로 이루어진 RW(rukun warga, 루쿤 와르가)는 기본 행정단위인 동(kelurahan, 클루라한) 아래에 위치한 비공식 행정단위이나, 실제로 대부분의 정책 실행은 이 공동체 단위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짐

- 동사무소와 구청 공간을 기반으로 예술 분야 활동가들의 트레이닝, 강습 등과 함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며, 통·반·동별로 예술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 또한, 통·반·동·구의 정기 주민참여 개발계획 회의(무르센방, mursenbang)에서도 예술 활동이나 시설 활용을 권장
- 소요 예산은 사업별로 관련 부서가 할당받는 州정부 예산(APBD)을 활용

◦ **또한, 州의 각 부서가 예술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

- 州 문화국은 예술가들의 트레이닝 및 예술을 활용하는 축제 활동의 수행과 자카르타 예술센터의 관리, 기타 문화예술 시설·인프라의 질적 향상 등을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담당
- 청소년체육국은 도시공원녹지서비스국과 연계하여 청소년 체육시설을 동마다 조성하여 예술, 문화, 체육, 기타 청소년 (야외) 활동이 한데 어우러지는 환경을 제공
- 창조경제관광국은 예술가들의 제작물 판매·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판매·공연 장소를 관리하며, 관광·숙박회사와 연계
- 자산관리국은 예술 공연·전시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건물을 파악하여 지도정보화
- 정보통신통계국은 예술활동의 디지털화를 돕는 매체를 제작하여 보급
- 주택국은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예술 강습을 진행할 수 있는 공동주거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
- 교육국은 학생들의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
- 지역협력국은 해외 자매도시 또는 해외 예술가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교류를 촉진하여 국내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

◦ **이 지침은 또한 지역 고유의 베타위(Betawi)족[3] 문화를 보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이미 시행 중인 「베타위 문화의 보전에 관한 州정부 조례」를 구체적으로 뒷받침
- 베타위문화원은 몇 달째 소득이 없어 생계에 곤란을 겪는 베타위 전통문화 예술가들을 돕고 베타위 문화를 부흥시키는 데에 있어 이 지침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3) 베타위족은 17세기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절 바타비아(오늘날의 자카르타) 일대에 정착하여 살아온 민족으로, 오늘날에도 자카르타 일대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2.9%(약 680만 명)를 차지함(2010년 기준)

http://www.beritajakarta.id/read/81642/kembangkan-ekosistem-berkesenian-pemprov-dki-terbitkan-ingub-452020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20/07/29/12325851/anies-instruksikan-lurah-dan-camat-manfaatkan-kantor-untuk-pelatihan

http://www.beritajakarta.id/read/79246/dinas-kebudayaan-inisiasi-pelatihan-seniman-go-online

http://www.beritajakarta.id/read/81673/dispora-siap-fasilitasi-kegiatan-berkesenian

http://www.beritajakarta.id/read/81706/lkb-sambut-baik-terbitnya-ingub-45-tahun-2020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20/07/29/11292101/keluarkan-ingub-anies-minta-jajarannya-kembangkan-ekosistem-kesenian-di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반려동물의 이유 없는 안락사’를 없애기 위한 행동계획 마련

일본 오사카市 / 사회·복지

오사카市는 ‘반려견(犬)·반려묘(猫)의 이유 없는 안락사 제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워진 사람에게서 인수하는 반려동물 마릿수 줄이기, 인수한 반려동물을 훈련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비율 높이기, 시민의 동물 애호에 관한 의식·관심 제고, 이해관계자와의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담은 행동계획을 마련

배경 및 목적

- **오사카市는 유기(遺棄)동물이나 질병, 이웃과의 분쟁 등 여러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워진 사람에게서 인수한 반려견·반려묘(이하, ‘반려동물’이라 함)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사업을 추진**
  - 반려동물을 인수할 때는 동물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키우는 반려동물의 마릿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적정 양육에 대해 지도하고, 인수한 반려동물이 사람을 무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를 판단해 양도
  - 市의 노력으로 반려동물 안락사 건수는 1989년 9,631마리에서 2016년 1,248마리로 약 87% 감소
- **市는 다른 정령지정도시[1]에 견주어 여전히 반려동물의 안락사 건수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원주인이 계속해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市가 인수하는 반려동물 수 자체를 줄이고, 인수한 동물을 훈련해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비율(이하, ‘반환·양도율’이라고 함)을 높이는 데 더욱 힘씀**
  - 市는 오사카부동물애호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을 목표로 반려동물 인수 마릿수 줄이기 및 반환·양도율 높이기에 힘쓰고 있음
  - 이 계획에 따라 ‘반려동물의 이유 없는 안락사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대책을 더욱 충실히 하고 새로운 과제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함
    - 해당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행정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이나 동물 보호단체, 관련 단체, 사업자, 시민 등 여러 활동 주체와 연계·협동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

---

1)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는 법률에 따라 내각의 정령(政令)으로 지정된 市를 말하며, 2020년 현재 오사카市를 포함해 전국에 20개의 정령지정도시가 있음

- 市는 '반려동물의 이유 없는 안락사 제로' 달성을 위해 기존 대책을 강화한 '반려견·반려묘의 이유 없는 안락사 제로를 위한 행동계획(「犬猫の理由なき殺処分ゼロ」に向けた行動計画)'을 마련
  - 2025년까지 '반려동물의 이유 없는 안락사 제로' 실현을 목표로 함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 행동계획에서는 인수하는 반려동물 마릿수 줄이기와 반환·양도 촉진을 통한 안락사 건수 줄이기, 시민의 동물 애호에 관한 의식·관심 제고 등을 통한 반려동물 유기 사전 예방, 반려동물 관련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나 이해관계자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효율적 대응에 역점을 두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

-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음
  - 반려동물 인수 및 안락사 현황을 분석해 매년 공표하고 '이유 없는 안락사 제로'에 관련된 여러 사업에 활용
  - 들개 포획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더 신속하고 확실한 들개 포획을 시행, 시험적으로 시행해 온 포유기(哺乳期) 고양이 양도 사업 본격 실시, 반려동물 양도 촉진 등 안락사 건수 줄이기를 위한 사업 강화
  - 소유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이크로칩 삽입을 권장하고, 현재 등록 의무대상이 아닌 반려묘의 등록 여부를 검토하는 등 반려동물의 적정 양육 추진
  -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 늘리기, 양육체험 프로그램 강화, 체험사업 확충, 기존 양육자에 대한 적정 양육 교육 추진 등 동물 애호 교육 강화
  - 로고 제작 및 활용 등 동물 애호에 관한 홍보활동 강화
  - 동물 관련 상담 관련 연계체제 구축,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고양이 대책 재구축을 통해 동물 애호 상담창구 기능 강화 및 제도 개선
  - 반려동물의 양도 촉진을 위한 양도회(譲渡会)나 동물 애호 관련 행사 외에 민간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동물애호 관련 시설 설치
  - 재해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피난할 수 있는 대책,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등 구축
  - 동물애호 관련 사업 기부금 활용
  - 동물애호에 대한 열정과 식견이 있는 시민들의 경험·지식을 활용하는 '동물애호 추진원 제도' 재구축
  - 동물 양육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시영주택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등의

행위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영주택 단지 내의 고양이 대책 마련

- 동물 관련 법률에 정해진 예방접종, 유기동물 관리, 반려동물 양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오사카 완냥센터(ワンニャンセンター)의 역할과 기능 증진

정책 평가 및 시사점

◦ ①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성격이 흉포하여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안락사가 필요한 때도 있고, ② 안락사를 금지하면 동물을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동물보호단체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안락사 제로'를 호소할 것이 아니라 오사카市의 사례처럼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https://www.city.osaka.lg.jp/kenko/page/0000433333.html
https://www.city.osaka.lg.jp/kenko/cmsfiles/contents/0000433/433333/koudoukeikakuR020331.pdf
https://www.city.osaka.lg.jp/kenko/page/0000476952.html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온라인 직거래 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서 내 '안전 교환 구역' 설치

캐나다 에드먼턴市 / 환경·안전

캐나다 에드먼턴市 에드먼턴 경찰청은 갈수록 늘어나는 온라인 중고물품 직거래 사기 사건을 방지하고자 '안전 교환 구역'을 경찰서 주차장에 설치하여 시범 운영. 성과에 따라 향후 市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

배경 및 목적

○ 에드먼턴市는 인근 위성도시인 세인트 알버트, 스트라스 그루브, 셔우드 파크, 레둑 등과 합쳐 약 150만 명 인구 규모의 도시로, 대규모 중고 온라인 구매 및 판매 커뮤니티인 키지지(Kijiji), 페이스북(Facebook), 이베이(ebay) 등이 있음

○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각종 사기 및 폭력, 절도 범죄도 증가 추세

- 에드먼턴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온라인 상거래에 의한 사기 피해 금액은 5,690,629.10달러(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2019년 온라인 직거래 시 판매자 혹은 구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사기 및 도난을 당해 신고한 건과 관련하여 77명을 체포하고 218건을 기소
- 경찰 수사를 통해 사기 및 도난당한 피해액 중 170,000달러(약 1억 5천만 원)를 회수

○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온라인 상거래 사건을 계기로 안전거래에 관한 대책 마련으로 발전

- 2019년 3월 16일 온타리오州 해밀턴市에서 휴대전화 직거래 도중 최루액을 분사한 뒤 거래 물품을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
- 2017년 9월과 11월에 동일인이 저지른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은 총과 칼로 위협한 범죄 사례

주요 내용

○ 에드먼턴 경찰청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 서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 교환 구역'을 경찰서 주차장에 설치하여 온라인 직거래 이용 시민에게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2020년 3월 5일부터 시작

- 안전 교환 구역은 온라인 판매 또는 구매를 위해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잠재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

- 시범적으로 에드먼턴 서남부 윈더미어(Windermere) 지역의 경찰서 주차장에 안전 교환 구역을 설치하여 운영
  - 온라인 직거래 시 안전을 위해 CCTV 및 전화기, 비상 알람 등을 설치
  - 감시 카메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감시하지만, 경찰은 낮 시간대를 주로 이용할 것을 권고
  - 경찰은 거래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또한 강도, 상해, 사기 등이 아닌 허위매물, 과장광고, 흥정 등 거래 자체에 대한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에드먼턴 경찰청은 시범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 다른 경찰서에도 안전지대를 설치할 계획

◦ **에드먼턴 경찰청은 안전 교환 구역 프로젝트와 함께 온라인 거래 시 주의사항도 발표**

- 외딴곳에서 만나거나 낯선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지인과 가족에게 행선지를 미리 알려줄 것
- 구매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청할 것
- 대금 지불 방법을 사전에 알려 강도 상해 위험을 줄일 것
- 온라인 상거래의 일련번호, 판매자 연락처 정보 등을 캡쳐해 둘 것

[그림 1] 온라인 상거래 안전 교환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안내 표지판

유사 정책 사례

◦ **캐나다 일부 도시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

- 에드먼턴 동부에 위치한 위성도시인 스트라스코나 카운티는 2016년 시범 프로

젝트를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음

- 캐나다 동부 위니펙市는 2019년부터 4개 경찰서 및 역 근처에 안전 교환 구역을 마련하여 운영 중
- 캐나다 서부에서 비교적 범죄율이 높은 아보츠포트市는 2018년 2월부터 안전 거래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중
- 몬트리올市는 2019년 12월에 '세이프존'을 설치하여 운영 중.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이혼 협의나 이혼 후 양육을 위한 자녀 인계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safe-transaction-edmonton-police-buyers-sellers-online-1.5487042

https://montreal.citynews.ca/video/2019/12/15/a-safe-zone-for-online-transactions/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대표적인 쇼핑가를 '자동차 없는 거리'로 운영

독일 베를린市 / 도시교통

교통 약자에 중점을 두는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중인 베를린市는 2020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대표적인 쇼핑거리이자 관광명소인 프리드리히슈트라쎄(Friedrichstraße)를 '자동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여 거리의 매력 제고와 침체된 상가 활성화를 기대

배경 및 목적

○ **베를린 정부는 2018년 7월 모빌리티법(Mobilitätsgesetz)[1)]을 시행하며 교통 약자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 **이에 따라 100만 유로(약 14억 원)가 투입되는 '자동차 없는 동네와 거리(Autofreie Kieze und Straßen)' 프로젝트를 지역별로 구상 및 시행 중**

-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프리드리히슈트라쎄(Friedrichstraße)를 '자동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것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
  - 2019년 10월 5~6일 프리드리히슈트라쎄를 대상으로 푸드트럭 운영, 워크숍 개최, 애니메이션 상영,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자동차 없는 주말'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한 바 있음

○ **프리드리히슈트라쎄는 대표적인 쇼핑거리이자 관광명소로 평소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복구할 때 과거의 도시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거리에는 가로수도 없고, 인도도 비교적 좁아 거리의 유명세에 비해 머물거나 거닐기에 좋은 거리는 아닌 것으로 평가받음
- 게다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도로 공사와 지하철 연장 공사가 있었고, 이의 영향으로 이 거리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 문을 닫는 상점이 늘어나고 있음

주요 내용

○ **프로젝트 대상 구역은 프리드리히슈트라쎄 중에서 라이프치거 슈트라쎄(Leipziger Strasse)와 프란최지셰 슈트라쎄(Französischer Straße) 사이 약 500m 구간**

---

1) 모빌리티법은 개인 차량보다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그리고 교통 약자에 교통정책의 우선순위를 둠

- 도로에 차량 접근이 전면 금지되며, 도로 중앙에는 약 4m 너비의 자전거도로가 설치
  - 구역 내로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서비스 차량은 이면도로에 마련된 정차 구역과 주변 건물 주차장을 통해 배달 등을 위한 공간과 통로 확보
- 자전거도로 양옆으로는 65그루의 가로수를 심고, 나머지 도로공간에는 보행자도로와 파크렛(Parklet)[2)]을 설치
  - 5개월간의 운영 기간에는 각종 행사, 워크숍, 디자인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됨
- 이 프로젝트에는 베를린 환경·교통·기후보호청, 베를린 경제·에너지·기업청, 베를린 관광청 그리고 미테 구청(Bezirksamt Mitte)이 공동 참여

정책 평가

-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 거리를 거닐면서 더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주변 기업과 상업시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베를린 상공회의소(IHK Berli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리드리히슈트라쎄의 자영업자는 자동차 없는 거리 프로젝트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지역 상인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추후에 참여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견 제기
  - 미테 구청장 스테판 폰 다셀은 “개인 차량이 많지 않을 때 쇼핑거리에 미래가 있다”며, 해당 프로젝트에 기대감을 표시
- 자동차 없는 거리를 장기간 운영했을 때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개인 차량과 배달 차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후 자동차 없는 거리 사업의 근거 사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하지만 자동차 없는 거리 운영 콘셉트가 부실해 결국 이벤트성 프로젝트로 끝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
  -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인 2020년 말로 해당 프로젝트 개시일을 연기하고, 프로젝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 제기
- 주민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도심의 상업지역을 물리적인 변화와 함께 이벤트 중심의 임시 프로젝트로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예상

2) 파크렛은 주차공간을 사람들의 여가 공간이나 공원 등으로 변경시킨 곳

시사점

- **베를린에서는 이 프로젝트뿐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차량이 중심이 아니라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운영 및 계획 중. 따라서 단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자동차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베를린의 또 다른 대표적인 쇼핑거리인 타우엔트치엔슈트라쎄(Tauentzienstraße) 역시 자동차 없는 거리로 계획 중이고, 지역별로 임시 놀이터 거리(Temporäre Spielstraßen)[3]를 운영 및 계획 중
- **자동차 없는 도시를 만들 때에는 획일화된 내용이나 방식이 아니라 구역별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
  - 쇼핑거리인 프리드리히슈트라쎄를 자동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데에는 이해관계자 간에 이견이 거의 없었고,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만 일부 제기되었음
  - 그런데 주거와 상업기능이 섞여 있는 베를린 브랑겔 동네(Wrangelkiez)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 없는 동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음

https://www.berlin.de/senuvk/verkehr/politik_planung/fussgaenger/mobilitaetsgesetz/index.shtml

https://www.berlin.de/senuvk/verkehr/politik_planung/fussgaenger/autofrei/

https://www.berlin.de/sen/uvk/presse/pressemitteilungen/2019/pressemitteilung.852066.php

https://www.berlin.de/tourismus/infos/verkehr/nachrichten/6222919-4357821-projekt-autofreie-friedrichstrasse-start.html

https://www.ihk-berlin.de/presse/presseinfo/neuer-inhalt220-06-30-umfrage-sperrung-friedrichstrasse-4834030

https://www.rbb24.de/panorama/beitrag/2019/10/friedrichstrasse-autofrei-friedrich-the-flaneur.html

https://www.rbb24.de/panorama/beitrag/2020/07/wrangelkiez-autofrei-berlin-kreuzberg.html

신 희 완 통신원, heewan.shin@gmx.de

3) 놀이터 거리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고 이웃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사회적 장소로, 고밀도 지역에 부족한 놀이터나 녹지공간을 대신하는 오픈스페이스. 특정 요일 혹은 특정 시간대에 임시로 운영됨

침체되어 있던 '카카아코' 지역을 신(新)상업지구로 개발

미국 하와이州 / 도시계획·주택

미국 하와이州 호놀룰루市 '카카아코(Kakaako)' 지역에서는 2010년대에 들어와 총 20곳의 새로운 주거용 콘도와 쇼핑몰, 대형 영화관 등이 건설 중. 공사가 완공될 경우 약 5만 세대가 이 일대에 거주하게 될 예정. 이 지역의 상업지구로의 개발 프로젝트는 관광업을 기반으로 하는 하와이 산업의 특성상 주거용 콘도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 중

배경 및 목적

- **하와이州 오아후(Oahu) 호놀룰루(Honolulu)市 카카아코(Kakaako) 지역은 쇼핑과 해변을 즐길 수 있고, 각종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로 평가받음**
  - 동쪽으로는 알라모아나 대로(Ala Moana Boulevard)와 와이키키 해변 피이코이 거리(Piikoi St)에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州정부청사와 市의회 건물, 금융센터 등이 있는 다운타운과 펀치볼 거리(Punchbowl St)가 인접한 지역
- **하지만 이 일대는 2008년 무렵까지 목공소, 자동차 정비소, 양조장, 세차장 그리고 홈리스 쉼터 등이 있던 곳으로, 대표적인 우범지역으로 알려졌던 곳**
-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州정부는 보행길 조성, 공원 개장, 주거용 콘도 건설, 쇼핑몰 유치 등을 통해 市의 새로운 상업지구로 개발하기 시작**
  - 특히 2012년 州의회는 일명 '카카아코 커뮤니티 구역 발전(Kakaako Community Development District)'으로 불리는 지역 개발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하여 하와이 지역사회개발 당국(Hawaii Community Development Authority)과 공동으로 카카아코 개발 목적과 투자방식, 개발 전망 및 계획 등을 일반에 공개
  - 당시 州정부는, 카카아코 지역이 서비스 및 경공업 지역으로서의 한계 탓에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각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활용해 주요 상업구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
    - 실제로 카카아코는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약 20년 동안 총 40건의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2억 달러 상당의 인프라 개선 작업이 진행되는 데 그침
  - 특히 州정부는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개발 이후 고용과 지역경제 발전 측면에서 가치와 잠재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힘. 주변 도시 지역과 조화를 이루어 상업지구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 하와이 지역사회개발 당국은 카카아코 일대가 새로운 상업지구로 변모되는 과정에서 인프라 개발자와 토지 소유자, 도시계획가, 규제기관, 자산관리자를 연결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음
- 이 일대에 州정부가 투자한 금액은 2억 2,500만 달러. 하와이 지역사회개발 당국은 이에 대해 이 지역에 대한 州정부의 장기적인 개발 의지와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

[그림 1] 호놀룰루市 카카아코 상업지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완공된 쇼핑몰 내외부 전경(통신원 직접 촬영)

주요 내용

◦ **하와이 주지사는 카페와 공원, 유치원, 시니어센터, 스타트업 오피스빌딩, 대형 쇼핑몰, 주거용 콘도 단지 건설은 카카아코 지구의 향후 30년 동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

- 조슈아 그린 주지사는 특히 州정부와 연방정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수십 개의 추가 프로젝트가 이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이 일대에 추가 투입될 공공자금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곧 호놀룰루市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주택 부족 문제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

◦ **주거용 콘도 개발은 '하워드 휴즈(Howard Hughes)' 그룹의 '워드 빌리지(WARD VILLAGE)' 건설 프로젝트와 카메하메하 현지 주립학교 기금의 '우리의 카카아코(Our Kakaako)' 건립 프로젝트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

- 州정부는 민간투자 방식과 공공 교육기관의 자금에 의한 투자 방식 등 2가지 방법을 활용해 지나치게 상업화·고급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응
  - 하워드 휴즈 그룹이 소유한 총 7만 3,450평 규모의 대지에 향후 20년 동안 총 22개의 주거형 콘도와 130여 곳의 쇼핑몰, 식당, 공원 등이 건립될 예정으로, 지나친 고급화·상업화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음
  - 카메하메하 현지 주립학교 기금의 '우리의 카카아코' 건립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및 보급 프로젝트임

◦ **州정부는 이 일대 개발 프로젝트 허가에 앞서 고급 상업지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아코 일대에 약 1,0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저소득층용 저가형 공공주택을 개발하여 보급에 나서겠다는 입장**

- 하와이 지역사회개발 당국은 카카아코 지구와 알라모아나 대로로 이어지는 690 Pohukaina St. 일대에 약 650피트 높이의 빌딩을 건설하면서 해당 빌딩 내부에는 호텔 객실 외에도 주거용 콘도와 일반사무실을 들이고, 1층부터 5층까지는 대형 쇼핑몰과 마트 등을 입점시킬 것이라고 밝힘
  - 특히 하와이 지역사회개발 당국은 해당 건물 주거지 면적의 50%를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주택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주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
  - 해당 빌딩 개발 비용에는 약 50억 달러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며, 州정부는 해당 건설사업을 통해 이 일대에 향후 7년 동안 1,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이와 관련해 하와이 지역사회개발 당국은 카카아코 지역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약 20% 정도를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형 공공주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힘
  - 하와이 지역사회개발 당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아코에 건설되어 분양될 저가형 공공주택은 4인 가구 기준 연평균 수입 8만 2,700달러 수준의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건설하겠다는 것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조사에 따르면, 호놀룰루市 1인 가구의 연평균 수입이 7만 달러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 일대에 건설·분양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호놀룰루 부동산 시세 대비 약 4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될 것으로 예상
  - 원룸형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1,042달러, 방 1개짜리 아파트는 월 1,116달러, 방 2개짜리 아파트는 월 1,339달러, 방 3개짜리 아파트는 월 1,548달러 수준에

공급될 전망. 해당 공동주택의 매매가는 37만 2,500달러에서 52만 1,400달러 사이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

[그림 2] 호놀룰루市 카카아코 상업지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규모 주거형 고층 콘도와 쇼핑몰이 건설 중인 '워드 빌리지(WARD VILLAGE)'의 모습(통신원 직접 촬영)

-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형 주택 구매자는 하와이 주택금융개발조합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향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팔 경우 반드시 해당 개발조합에 매입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에 동의해야만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리고 입주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임대는 불가

◦ **州정부는 카카아코 일대에 시니어 및 일반 서민주택 추가 건립을 시작**

- 615 키아베 스트릿(615 Keawe St.)에 총 42층 규모의 주거용 콘도(일릴라니 콘도)가 착공됨. 완공까지 총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州정부는 이 일대에 총 328세대가 입주하고, 그중 165세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분양할 것이라고 밝힘
- 저소득층 전용주택 보급 사업과 관련해 州정부는 저소득층 주택 제공 조건으로 개발사에 토지 이용과 건축 허가증 발급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였다고 밝힘

- 특히 일릴라니 주거용 콘도에는 9층 주차장 시설과 옥상 내 잔디밭, 공동 정원, 공용 수영장, 바비큐 시설, 옥외 영화상영장 등 다양한 위락시설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하와이 지역사회개발 당국은 향후에도 카카아코 지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업지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거용 콘도, 쇼핑몰, 음식점, 컨벤션센터 건설 등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를 통해 하와이를 찾는 여행객들이 와이키키 이외에도 카카아코 지역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

http://histategis.maps.arcgis.com/apps/Cascade/index.html?appid=04d4822f078a4bffb6f153eb3daa6f59

https://law.justia.com/codes/hawaii/2012/title-13/chapter-206e/section-206e-31/

https://trackbill.com/bill/hawaii-senate-bill-1530-hcda-means-of-financing-conversion-kakaako-community-development-district-transfer-plan-city-and-county-of-honolulu/1652842/#/details=true

https://www.kitv.com/story/37562470/bill-would-move-oversight-of-kakaako-from-hcda-to-city

https://www.hawaiibusiness.com/kakaakos-building-boom/

http://kakaakoproperties.com/planned-map-overview/

http://www.ourkakaako.com/master-plan/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485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9월 28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